

미국 마감 상황

2009.01.20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20일 뉴욕증시는 버락 오바마의 미 44대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악화 우려와 금융주 중심의 실적 우려로 인하여 급락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332.13p(4.01%) 하락한 7,949.09에 장을 마감. 지난 1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8,000선을 하회.

S&P500 지수는 전장대비 44.90p(5.28%) 떨어진 805.22에 마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8.47p(5.78%) 떨어진 1,440.86을 기록.

이날 증시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금융주들의 실적 우려로 인하여 하락 출발. S&P500 금융지수는 1995년 4월이래 최저치를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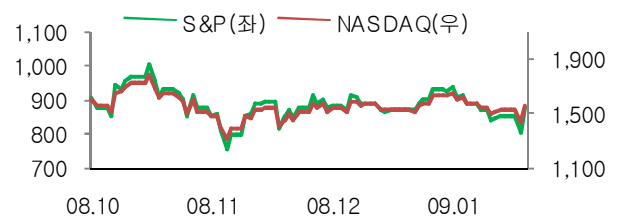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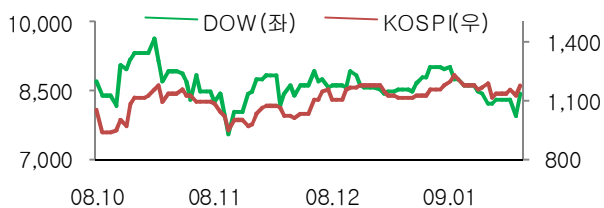
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상업어음 등 투자자산의 미실현 손실로 인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표. 채권관련 미실현 손실은 지난 9월 33억달러에서 12월 63억달러로 증가.

이날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주가는 21.46달러(59.04%) 폭락한 14.89달러에 마감.

뱅크오브아메리카(BOA)는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29% 급락. 웰스파고는 실적전망 악화로 인하여 23% 급락. 씨티그룹과 JP 모건도 20%대의 급락세를 나타냄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7,949.09	-4.01	-5.91	-11.82	-7.34	-14.21	-34.30
S&P(좌)	805.22	-5.28	-7.64	-13.85	-9.31	-18.28	-39.24
NASDAQ(우)	1,440.86	-5.78	-6.83	-12.80	-7.89	-18.60	-38.43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